

“참선 근본 몰라 경계·마에 빠져”



④ 경계와 마

‘경계(境界)’ ‘마(魔)’ 역시 ‘선병(禪病)’의 일종입니다. 이 역시 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적 오관입니다.

‘선병(禪病)’ ‘경계(境界)’ ‘마(魔)’는 다 비슷비슷한 것인데

‘경계’는 마음을 혼드는 대상... ‘마’는 참선 중 겪는 환영 수행 중 셋길로 빠져 생기는 이상현상 신기해하면 안돼

스한 것인데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병은 고집적인 사고방식이나 문제집 등이고, 경계는 마음을 혼드는 대상이며, 마(魔)는 참선 중에 겪는 환영(幻影, 환청(幻聽), 환시(幻視)) 등 정신적인 것입니다. 선병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경계’와 ‘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계(境界)’란 자신이 부딪히게 되는 수행상의 모든 일들(대상)을 말합니다. 나를 주(主)라고 할 때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이 모두 경계입니다. 이 대상에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는 것은 청정, 불편하게 하는 것은 비판과 비난입니다. 청정에는 기쁨이 따르지만(그래 봐야 잠시일 뿐이다) 비판에는 분노와 증오가 따릅니다. 수행의 척도를 알려면 간단히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환영이고 내적인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열거하면 육체적·이성적 욕망에서부터 명예욕, 물욕, 생명의 수면욕, 권력 등 갖가지 욕망과, 괴로운 번민, 번뇌, 시기, 질투, 공포, 무서움 등 심리적인 것과,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즐거움, 빈부(貧富)와 귀천(貴賤), 늙음과 죽음, 배고픔과 추움 등 견디기 어려운 것, 그리고 옳고 그름(是非), 망설임과 의혹, 자존심·아만·선과 악·의(義)와 불의(不義)·사(邪)와 정(正) 등에 대한 구분과 명석한 판단력 등이 모두 수행자에게는 넘어야 할 대상이고 경계이며, 자신의 수행 척도를 테스트하고자 달려드는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수행자들은 자신의 수행력이 과연 어디를 통과했다고 생각합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판할 때 일어나는 노여움은 뛰어넘었습니까? 아만과 자존심은 뛰어넘었습니까? 탐욕은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도 뛰어넘지 못

한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저 역시 하나도 뛰어넘지 못했음).

수행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든 위빠사나든 할 것 없이 아만과 자존심, 욕망과 분노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수작입니다. 수행력으로 안 된다면 이성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정하는 인격 수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魔)’는 환영(幻影)·환청(幻聽)·환시(幻視) 등입니다. 참선 중에 헛것이 나타나거나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리는 등 수행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좌선하고 있는데 무기를 든 신장들이 나타난다거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밖의 일이 보인다거나 등인데 이런 것은 모두 환(幻)의 일종으로서 신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귀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만 들린다고 하소연 하는데 이 역시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하고 오히려 매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수행 중에 잘못된 것입니다. 셋길로 빠진 것인데 그런 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추종하다가 일생을 버린다거나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훌륭한 선승 중에는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선승이 없는데 요즘은 환영, 환시, 환청 등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탄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마구니’ 또는 ‘마(魔)’라고 합니다.

초기불전에 보면 ‘마(魔)’ ‘마(魔)’ 등 표현이 많고 또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물론이고 이룬 후에도 앞에서 열거한 갖가지 경계와 마가 나타나서 그것을 극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본다면 ‘경계’나 ‘마(魔)’란 ‘마음의 갈등’ ‘마음의 흔들림’ 등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의 대상(좋은 옷, 이성의 육체 등), 귀에 들리는 청각의 대상(마음을 혼드는 노래, 욕 등 소리), 후각의 대상인 냄새, 미각의 대상인 음식, 감각의 대상인 이성의 육체, 생각의 대상인 모든 존재 등에서 오는 욕구와 욕망, 갈망 등 정신적 현상이 모두 경계이고 마입니다.

경계·마는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중요·환영 등의 현상으로서 참선의 근본 뜻과 참선 중에 오는 갖가지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증세입니다. 차별심, 분별심, 번뇌 망상 등에 의해 생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특히 마(魔)에 대해서는 <능엄경> 10권 변마장에서 50가지 마를 열거했는데 자칫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으므로 안목을 갖고 참고해야 합니다. ■윤창희 민족사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선·염불에서 가장 훌륭한 방편 ‘이근원통’

④ 보덕 각시

유명한 관음도량인 금강산 보덕굴(普德窟)은 관음의 화신 보덕 각시가 출현했던 곳으로 전해져온다. 고구려의 보덕 화상이 관음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 627년(고구려 영류왕 10) 창건한 도량이며, 고려 의종 때 고승 회정(懷正) 스님이 천수주력(千手呪力)으로 기도해 관음의 원통삼매(圓通三昧)를 성취한 곳이기도 하다.

회정 스님과 보덕 각시의 구도과정이 담긴 설화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고려시대, 표훈사 인근 송림암에는 30대의 건장한 회정 스님이 3년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관음보살’을 부르면서 천수대비주 30만독으로 관음 친견을 발원했다. 1000일 기도정진을 회향하는 날, 스님은 드디어 꿈속에서 귀부인을 만났다.

“강원도 양구현 방산면 해명계곡을 찾아 물골옹(沒骨翁)과 해명방(解明方)을 만나 보아라. 그러면 관음의 진신을 친견하게 될 것이니라.” 스님은 꿈에서 깨자마자 해명계곡을 찾으니 조그만 오두막에 노인이 있었다.

“혹시 노인장께서 물골옹이 아니신지요?” 스님이 찾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물골이 지저분한 노인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라”고 일러줬다. 다음날 일찍, 스님은 노인이 일러주는 대로 산 너머에 사는 해명방의 삼간초막을 찾아갔다. 반가움에 달려가 보니 해명방은 보이지 않고 대신 처녀가 초막을 지키고 있었다. 처녀

의 이름을 물어보니 보덕 각시라고 했다. 말할 때마다 은은한 향기도 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돼 키가 9척에 우락부락한 해명방이 돌아왔다. 찾아온 이유를 묻자, 스님은 “관음보살을 친견하려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해명방은 “관음진신을 친견하고 싶으면 자신의 딸인 보덕 각시와 혼인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고된 끝에 스님은 사위가 돼 부녀를 받들기로 시봉했다. 하지만 각시는 성불구자여서 실제로 부부관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님에게는 부부로서의 참맛을 모르니 불행이었고, 계를 파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행이었다.

고구려 비래방장(飛來方丈)의 주인공인 보덕 화상으로 금강산 만폭동 보덕굴에서 수도했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 석굴 속에는 전생에 사용하던 경전과 불기, 촛대, 향로 같은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이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보덕굴이 관음보살의 거처요 전생의 수행처임을 알고서, 그곳에서 열심히 정진해 원통삼매를 증득했다.

관세음(관자재)보살은 <법화경> ‘보문품’에서 신심과 중생구제의 발원을, <반야심경>에서 반야지혜의 길(五藏)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흠과厄을 넘어선다는 제시해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 <능엄경>에서는 이근원통의 가르침으로 듣는 성품을 돌이켜 깨달도록 이끈다. 또 <화엄경>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보시(布施), 친절하게 말하는 애어(愛語),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행(利行), 타인과 함께

금강산 보덕굴 관음 화신 보덕 각시 출현한 곳 회정 스님 보덕 각시 본 후 정진해 원통삼매 증득

3년이 지나는 동안 해명방은 전혀 관음의 진신을 친견시켜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스님은 떠나기로 결심했다. 돌아가는 길에 물골옹을 만나 그간의 일을 설명하니, 물골옹은 이렇게 말한다.

“해명방은 보현보살이요 보덕 각시가 관음보살의 진신인데, 47일을 함께 지냈으면서도 못 보았다고 하는가.”

스스로 안목 없음을 후회한 스님은 다시 온 길을 거슬러 갔지만 초막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재발심후 용맹정진한 스님은 그뒤 각시와 재회하면서 자신의 전생담을 듣게 된다. 각시는 회정이

고락을 함께 하는 동사(同事) 등 4상사(攝事)로 대비행을 닦도록 한다. 관음의 화신 보덕 각시 역시, 이런 방편으로 스님을 깨닫게 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바로 이근원통(耳根圓通)이다. 선과 염불에서 가장 훌륭한 방편으로 여겨져 온 이근원통이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다가 그 소리를 듣는 주인공(自性)을 듣는(살피는) 공부방법이다. 흔히 반문문자성(返聞聞自性) 즉,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고 한다. 듣는 마음을 다시 관조하면 소리도 사라지고 듣는 그 자신도 사라져서 우주와 하나가 돼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법론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108능엄주 기도=부산 육천사는 11월 1일 오후 5시부터 능엄선원에서 108능엄주 기도를 실시한다. 기도비는 2만원이상, 음료와 간식은 개인 준비해야 한다. 2일 오전 8시에는 신창자 80명에 한해 경주 남산 청룡사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51)781-1744

●사경법회=서울 능인선원은 11월 6일 오전 11시 국녕사 대불전에서 사경법회를 개최한다. 사경집은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관음경>으로 5일까지 사경원장에게 사경권을 받아야한다. (02)577-5800

●위빠사나 집중수행=롯데선원은 11월 20-24일 연기 지장사에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김일권 법사가 개인에 맞는 수행방편을 찾아 일상에서 가능한 수행법을 지도한다. 동참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 15명 접수가능. (041)868-3119

●오덕수련원 집중수련회=수행공동체 ‘제파와나무’는 11월 3일 저녁 7시부터 30일까지 남양주시 축령산 오덕수련원에서 집중수련회를 연다. 미안파 최고 수행승 파옥 아치나 스님과 제자 우래와다 스님이 좌선과 경행을 지도하고, 수행점검한다. (070)8267-0108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하는 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석가모니부처님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회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괘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괘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괘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특괘불(大·中·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 품목 단청, 탕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민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리아기회 상담전화 : (02)714-7253 / 010-9939-5412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뻐뻐,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두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 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 내일신문, 조선닷컴, 동아닷컴 보도

콜레스테롤함량, 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도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주시민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뚜가게건물 205호
 ◇자매동: 파원동, 굴반사당101, 철주사당(신선대)